

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분석

2009.10.30 |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| hjpark@saesayon.org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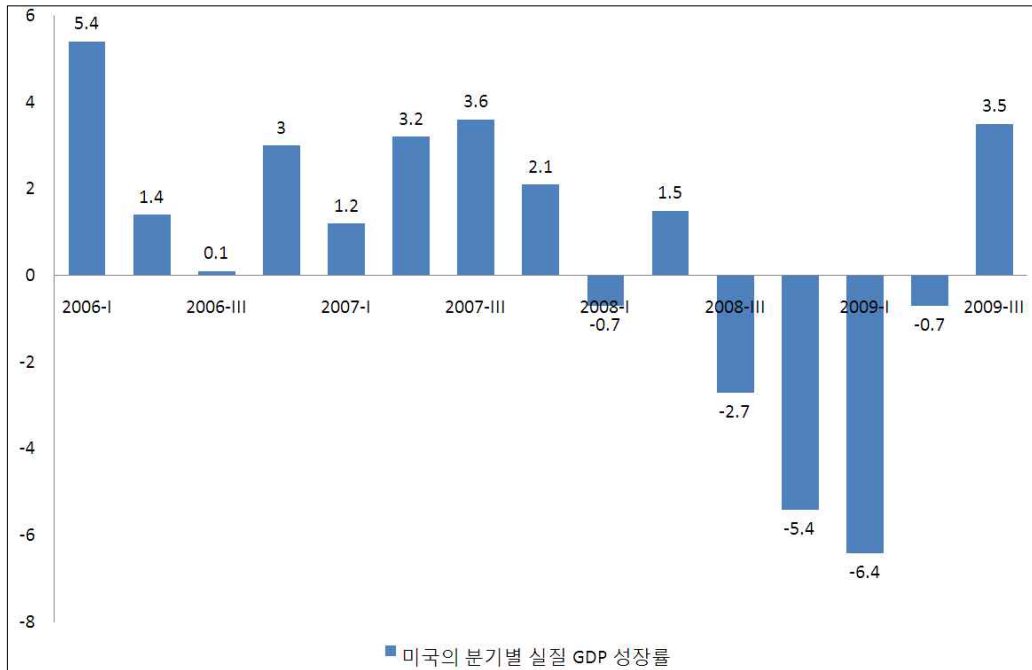
1. 3분기 성장률, 전기 대비 3.5퍼센트 성장
2. 정부에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
3. 자동차 판매지원이 이끈 성장
4. 고용불안으로 오래 못 갈 GDP 성장세



<http://saesayon.org>

1. 3분기 성장률, 전기 대비 3.5퍼센트 성장

[그림1] 미국의 분기별 실질 GDP성장률(단위: 퍼센트, 연율로 환산된 값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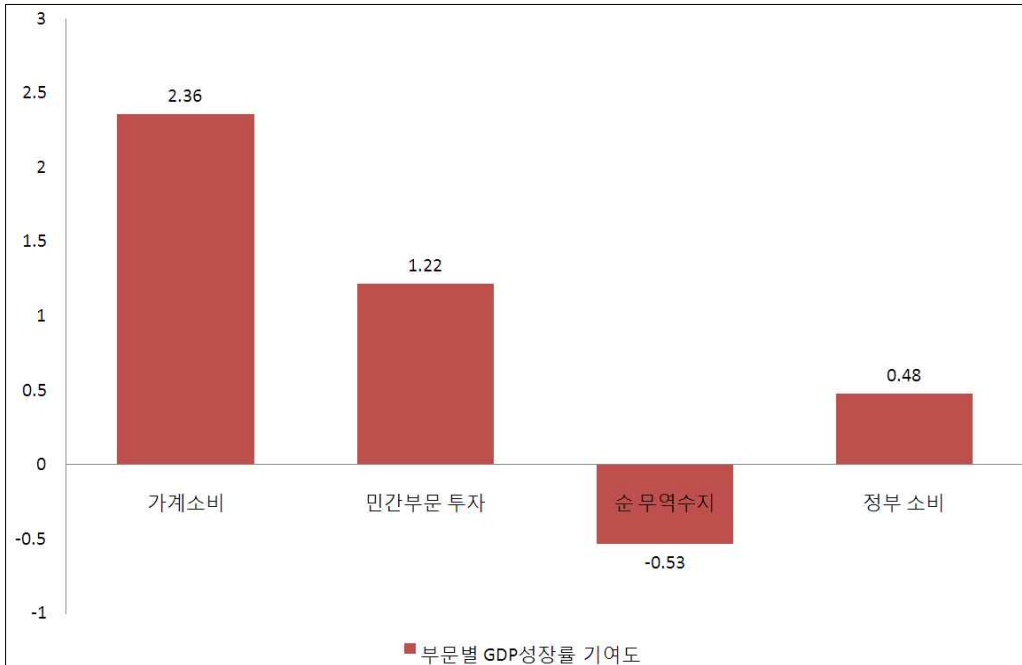
출처: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■ 미국의 3분기 잠정 GDP성장률 전 분기 대비 큰 폭 상승

- 2009년 10월 29일 미국의 경제분석국에서 3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3.5퍼센트 상승했다고 추정치 발표(그림 1 참조)
- 금융 공황의 진원지였고, 전 세계 실물경제 침체를 이끌었던 미국이 플러스 성장을 이끌어 내자 유럽과 북미의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
- GDP = 가계소비 + 민간부문 투자 + 정부소비 + (수출 - 수입) 등식에서의 부문 별 변화율을 보면,
가계소비는 3.4퍼센트 증가, 민간부문 투자는 11.5퍼센트 증가, 정부소비는 2.3퍼센트 증가, 수출 14.7퍼센트 증가, 수입 16.4퍼센트 증가
- 민간부문 투자의 경우 1분기 50퍼센트 감소, 2분기 24퍼센트 감소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
- 수출과 수입도 1분기에 30퍼센트 넘게 감소했고, 지난 2분기에도 각각 4퍼센트와 15퍼센트 감소했는데, 3분기에는 크게 향상됨

2. 정부에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

[그림2] 부문별 GDP성장률 기여도(단위: 퍼센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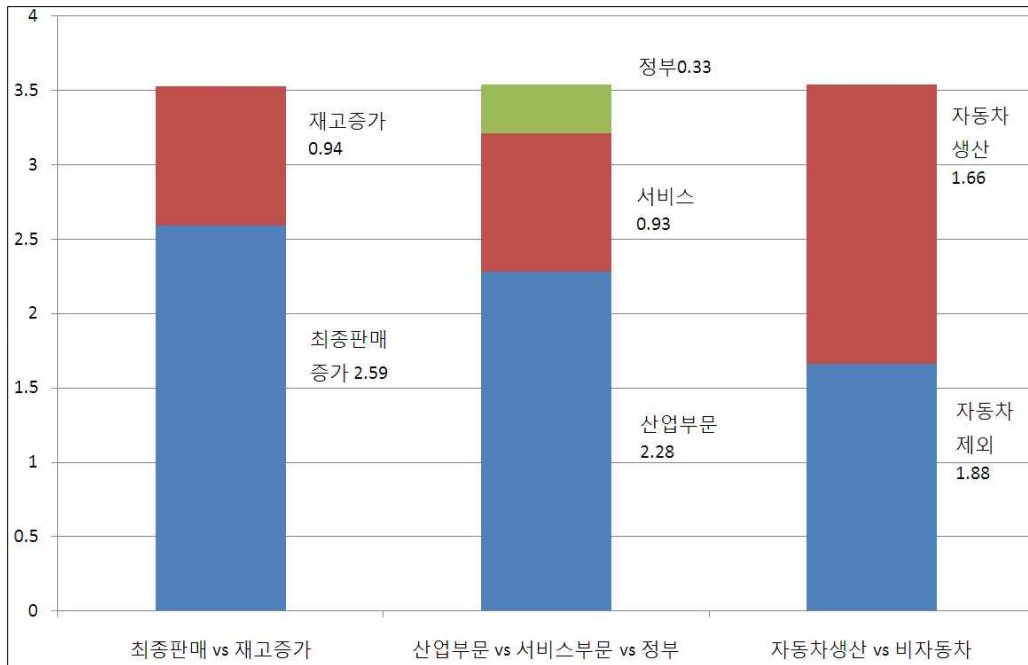
출처: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■ 국가의 부양자금에 의존한 가계소비의 증가가 GDP 성장에 가장 큰 요인

-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반응과는 상반되게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임
- GDP성장률[3.5] = 가계소비[2.36] + 민간부문 투자[1.22] + 정부소비[0.48] + (수출 - 수입)[-0.53] (그림2 참조)
- 민간부문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큰 기여를 했지만, 가계의 소비 증가가 전체 GDP성장 3.5퍼센트 중 3분의 2가 넘는 2.36퍼센트를 차지
- 가계소비의 증가는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음
- 가계소비가 3.4퍼센트 증가했지만 실질 가처분소득은 3.4퍼센트 감소
- 여전히 개인소비 증가가 국가의 경기부양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

3. 자동차 판매지원이 이끈 성장

[그림3] GDP성장률 기여도 분석-여러 가지 하위 구성요소별(단위: 퍼센트)



출처: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■ 미국 정부가 실시한 중고차 보상제도가 GDP 성장에 주요한 역할 수행

- GDP성장률 기여도를 여러 형태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해 보면
 - 최종판매증가[2.59] + 재고증가[0.94] = GDP 성장율[3.5]
 - 산업부문성장[2.28] + 서비스부문성장[0.93] + 정부부문[0.33] = GDP 성장율[3.5]
 - 자동차 생산증가[1.66] + 자동차제외[1.88] = GDP 성장율[3.5]
 - 자동차의 생산 판매의 증가가 GDP 성장률 증가에 거의 반을 차지
 - 3분기 성장의 주된 동력은 미국 정부가 실시한 Cash-for-Clunker(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최고 4500달러까지 리베이트 지급, 지난 8월말 종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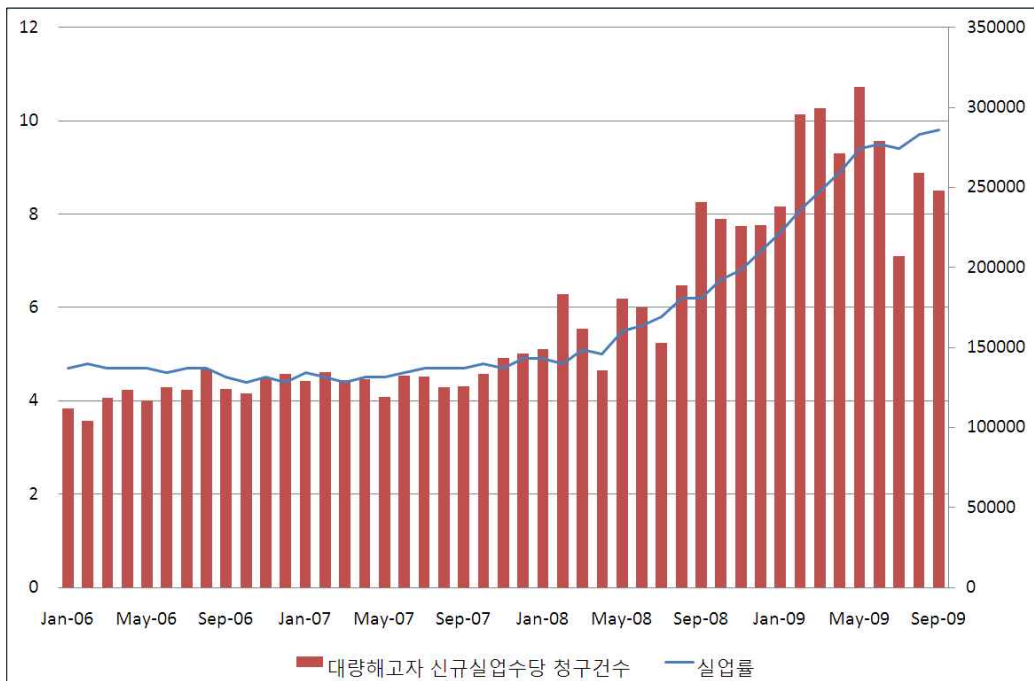
4. 고용불안으로 오래 못 갈 GDP 성장세

■ 대량해고에 의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여전히 높음

- 9월 미국의 실업률은 9.8퍼센트로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못함(그림4 참조)

- 대량해고에 의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9월에 24만 8천 명으로 연초보다는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
- 고용사정의 불안정이 위에서 언급한 가치분소득이 줄어든 현상의 주요 원인
- 지금까지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에 의존한 가계소비 증가로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호전시켰지만,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GDP 성장의 호전은 더딜 것으로 예상
- 정부의 부양자금은 앞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증가와 고용사정의 호전이 이를 대체해 주지 못하면 소비의 증가가 계속되기는 힘들다고 판단 됨

[그림4] 미국의 실업률과 대량해고에 의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(단위: 퍼센트)



출처: 미국 노동통계국